

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영국보험협회, 연령별 데이터 사용금지는 불합리

- 영국은 시행예정인 평등법(Equalities Bill)에 따라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 제공시 불합리한 연령차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가운데 보험부문에서는 보험료 산출시 연령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힘.
 - 영국은 2004년 제정된 EU의 성차별반대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8년 6월 26일 평등법을 상정함.
 - 현재 보험료 산출시 영국에서는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별은 몇 가지 조건하에서 수용되는 상황이나 연령별에 따른 보험료 차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임.
 - 성별은 보험료 산출시 여러 요소 중 한 요소로서 관련 계리 통계가 공표되고,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조건하에서 수용되고 있음.
- 영국보험협회(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)는 보험료산출에 연령별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필요하며, 불공정을 불러오고, 보험서비스를 중단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히면서 가격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.
 - 보험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기에 때문에 이미 연령차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.
 - 노령자 99%는 자동차보험 구매가 가능하고, 98%는 여행자보험 구매가 가능함.
 - 연령 등을 고려하는 것이야 말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료 산출에 공정을 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함.
 - 자동차보험의 경우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평균보험금 청구가 60세 이상보다 50%이상 많으며, 여행자보험의 경우 65세 이상의 평균보험금은 50세 이하보다 3.5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.
 -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령을 보험료산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노령계층이 지닌 리스크를 무시하는 행위임.
 - 연령별 정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담보하는 위험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보험상품 자체가 생산될 수 없다고 밝힘.
 - 연령별 데이터가 사용되지 못할 때 전체 보험료수준은 상승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여행자보험료는 기존보다 2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함.

(영국보험협회 보도자료 3/2, FSA, Equal Treatment Directives, Financial Times 3/3)